



아주 특별한 초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당신을 위한 열린 문

새 학교 첫날의 두근거림, 기억하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느끼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야, 나랑 같이 앉을래?



그 말 한 마디에 찾아오는 안도감.
‘아, 나도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나도 여기 속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마땅히 반겨야 할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큰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영접

(문을 열기)

+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것

=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1. 택배 도착 (문 밖)

문 앞에 그냥 두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죠.



2. 문 열기 (결단)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3. 내 것으로 만들기 (초대)

문을 열고 안으로 가져와야
진짜 내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초대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친한 친구와 밥을 먹듯 함께 걷어가는 시작입니다.

자격의 조건: '누구든지'



자격 = 하나님이 직접 달아주시는 ‘이름표’



한 가족이 아이를 사랑으로 맞아들일 때, 아이에게 새로운 성(Family Name)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름표 역시 성경을 많이 외워서,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손님 vs 진짜 가족

손님

머무는 시간	즐겁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함
조건과 태도	잘 보이기 위해 조심해야 함
정체성	일시적인 방문자

진짜 가족

머무는 시간	절대 변하지 않음. 영원히 함께함
조건과 태도	실수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 자녀야 하고 부르심
정체성	언제 어디서나 버려지지 않는 진짜 가족

온전한 소속을 향한 여정



마음을 여는 하나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잊은 날이 있어도,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적 없다면,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를 하나님 가족으로 삼아 주세요.**



매일 이어지는 동행

문을 여는 이 한 마디가 시작입니다.

오늘 결단했다면,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접한 분들도 오늘 그 결단을 다시 기억하세요.

내일도, 모래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세 번 외쳐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자격.